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된 주차동 증축 공사가 최근 완료됐다. 이번 공사로 주차동은 기존 4층에서 6층으로 확대됐으며 내원객 차량은 1~4층, 직원 차량은 5~6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6월 8일 증축 공사를 마치고 정상 운영 중인 주차동 6층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나호 정답



제773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헬스에디터 - 자궁경부암 백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영상의학팀 박선아 주임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7월 1일(수)
발표 제777호(2026년 7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남다름(암병원간호2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김주희(심장검사팀)
류가영(중앙급급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이은주(외과간호2팀)
형재원(중앙내과)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권영준(시설팀)
김민정(암병원간호1팀)
안수영(진단검사의학팀)
이정호(자재팀)
이향숙(간호교육행정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고재남(병리팀)
유정숙(수술간호팀)



서울아산병원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VOL.775 2026. 6. 15



난치암 극복을 위한 새 도전, 중입자치료센터 착공

국내 암환자 8명 중 1명을 치료하며 연간 106만 명의 암환자를 진료

하는 우리 병원이 6월 11일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을 열고 난치성 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2031년 가동을 목표로 건립되는 중입자치료센터는 회전형 치료기 2대와 고정형 치료기 1대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초기 발견이 어렵거나 기존 치료에 내성을 가진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암 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착공식에서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창규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코우 이소기미 니켈세케이사 설계부문 대표, 초토무 다케우치 도시바사 대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박성욱 의료원장, 박승일 병원장, 송시열 중입자추진단장(왼쪽부터)이 시삽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2면)

03 NEWS 뇌동맥류 치료 국내 첫 2만례

12 헬스에디터 혈당,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흐름을 읽는다

08 AMC 광장 환자가 느끼는 치료 결과까지 바라보다

17 컬러 & 라이프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국내 최대 규모… 난치성 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



중입자치료센터 조감도.

난치성 암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이 6월 11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박성욱 의료원장, 박승일 병원장, 송시열 중입자치료센터장 등 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서강석 송파구청장, 초토무 다케우치 도시바사 대표, 코우 이소기미 니켄세케이사 설계부문 대표,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치료는 탄소 등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밀 조사하는 방사선치료 방법이다. 기존 방사선치료보다 파괴력이 2~3배 높으면서도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격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초기 발견이 어려운 췌장암이나 기존 치료에 내성을 가진 폐암, 육종암, 신장암, 재발암 등에 적용이 가능해 난치성 암의 치료 성과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병원 중입자치료센터는 2031년 가동을 목표로 연면적 3만

9,502㎡(약 1만 1,949평)에 총 12층(지하 3층, 지상 9층)의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다. 내부에는 일본 도시바사가 제작한 회전형 치료기 2대와 고정형 치료기 1대 등 최고 사양의 장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중입자치료센터 건물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며 감리는 한미글로벌이 맡는다.

기존 치료기보다 중입자 빔의 조사 범위가 넓고 선량률(단위시간 당 방사선 양)이 높기 때문에 단시간에 넓은 부위를 치료할 수 있어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탄소 이온뿐 아니라 헬륨, 네온, 산소 등 다양한 입자를 활용하는 멀티이온빔 장비를 통해 내성이 강한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소아 종양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CT 장비를 이용한 영상유도 시스템도 도입해 치료 중 변화하는 종양의 크기나 위치를 정확하게 반영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현할 예정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77년 선친이신 정주영 설립자님이 아산재단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오늘날 무의촌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여전히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기다리는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중입자치료기 도입은 선친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병원장은 “중입자치료는 방사선치료 가운데 가장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 중 하나다. 암환자들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병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료권한 시스템 개편 완료



진료권한 시스템 개편 종료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료권한 시스템 개편이 최근 완료됐다. 우리 병원 전문의의 임상역량을 확인해 적절한 진료권한을 승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진료권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GS실은 진료권한 시스템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한 진료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교수 개인별 진료권한 정역서 구축 ▲진료과별 진료지표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진료 현황 개별 보고 시행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뇌동맥류 치료 국내 첫 2만 레



뇌혈관팀 의료진이 국내 최초 뇌동맥류 치료 2만 레 달성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뇌동맥류는 파열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지만 일단 파열되면 뇌출혈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뇌 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파열 후 응급치료뿐 아니라 비파열 상태에서 조기 발견해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병원 뇌혈관팀이 최근 국내 첫 뇌동맥류 치료 2만 레를 달성했다. 뇌혈관팀은 신경외과 권병덕·안재성 교수, 박중철 부교수, 최준호 조교수, 영상의학학과 이덕희 교수, 송윤선·권보성 부교수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이후 매년 1,000례 이상의 고

난도 치료를 안정적으로 시행해 왔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된 뇌동맥류 치료 데이터 2만 874례를 분석한 결과 클립결찰술, 혈관문합술 등 수술적 치료가 1만 3,334건, 코일색전술, 혈류 전환 스텐트 등 혈관 내 치료가 7,54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비파열 뇌동맥류 치료 후 주요 합병증 또는 사망·중증 후유장애 발생률은 클립결찰술 3.5%, 코일색전술 1.7%로 확인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인 클립결찰술 약 6~12%, 코일색전술 약 5~10%와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 성적을 보여준다.

우리 병원은 1989년 신경외과 황충진 교수의 첫 뇌동맥류 수술을 시작으로 국내 뇌동맥류 치료를 선도해 왔다. 1991년에는 국내 최초로 심정지 후 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시행했으며, 1996년에는 신경외과 권도훈 교수가 가느다란 백금 코일(GDC 코일)을 혈관 안에 삽입해 동맥류 내부를 막는 색전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며 치료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후 2025년 8월 국내 첫 뇌동맥류 치료 2만 레를 달성하며 국내 뇌동맥류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파킨슨·알츠하이머센터 심포지엄



파킨슨·알츠하이머센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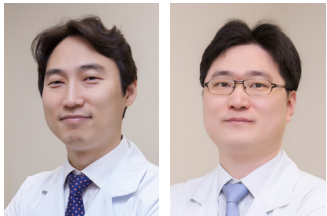
파킨슨·알츠하이머센터 심포지엄이 6월 5일부터 이틀간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심포지엄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파킨슨병 유전 역학 국제 컨소시엄(GEoPD)’과 공동으로 개최

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팸 매클레인, 독일 뢰베크 의과대학의 크리스틴 클라인,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대학의 레이코 크루거, 프랑스 파리 제6대학의 수잔 레사지 등 총 10개국 23명의 세계적인 신경과학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파킨슨병의 새로운 유전자 식별 ▲파킨슨병의 분자적 이해와 치료법 ▲가족력 연구와 AI를 통해 본 파킨슨병의 유전 기전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선주 파킨슨·알츠하이머센터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와 치료법 개발, 연구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론병 치루에 연어 추출 물질 치료 효과 입증



윤용식 교수

이종률 교수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 환자는 합병증으로 치루를 앓는 경우가 많다. 크론병 치루는 항문 주변에 고름 터널이 생기는 질환으로 재발이 잦고 통증과 분비물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현재 70%의 성공률을 보이는 줄기세포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제조 공정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대장항문외과 윤용식·이종률 교수팀이 크론병 치루 수술 시 연어에서 추출한 재생의학 물질인 PDRN(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을 국소 주입하면 기존 수술법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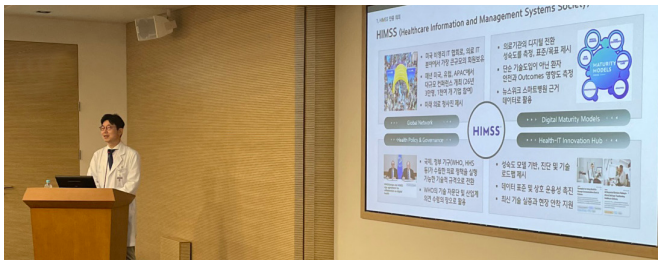
연구팀은 PDRN이 세포막의 아데노신 수용체(A2A)를 활성화해 염증을 억제하고 신생혈관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상처 치

유와 조직 재생을 돕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병원에서 크론병 치루 수술을 받은 환자 47명을 PDRN 사용군 21명과 미사용군 26명으로 나눠 치료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1년 후 치루가 완전히 닫힌 비율 즉 완치된 경우는 PDRN 사용군이 83.3%로, 미사용군 46.2%보다 약 1.8배 높았다. 회복 속도 또한 PDRN 사용군이 훨씬 앞섰다. 완치까지 걸린 기간도 PDRN 사용군이 평균 3.3개월로, 미사용군 5.9개월보다 약 2.6개월 짧았다.

PDRN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과 편의성이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비용과 비교해 PDRN이 약 100배 저렴하며 별도의 세포 배양 없이 기성품을 바로 쓸 수 있어 환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PDRN을 치루 수술에 적용해 효과를 입증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으로, 향후 난치성 크론병 치루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크론병 및 대장염 분야 저명 학술지인 「염증성 장질환」 최신호에 게재됐다.

디지털 의료영상 성숙도 인증 TF 발족



김영학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이 디지털 의료영상 성숙도 모델(DIAM) 인증 추진 의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최근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가 주관하는 ‘디지털 의료영상 성숙도 모델(Digital Imaging Adoption Model, DIAM)’ 인증 획득 준비에 착수했다. 우리 병원은 2024년 HIMSS가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화 인프라 모델(INFRAM) 평가에서 글로벌 최고 등급인 7단계를 아시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DIAM 인증은 일반촬영, 핵의학, 디지털 병리 등을 포함해 진료에 활용되는 의료영상 데이터의 관리, 공유, 분석 역량과 시스템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다. TF에는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소화기내과 등 진료과를 비롯해 진료지원실, 디지털정보혁신본부, 국제교류팀이 참여한다. ▲디지털 영상의 전사적 통합 관리 ▲데이터 분석 및 AI 모델을 활용한 임상 성과 도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환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등 관련 성과를 국제 표준에 맞게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DIAM 6단계, 2027년 1분기에 최고 등급인 7단계 획득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제환 진료부원장은 “이번 인증 준비가 우리 병원의 디지털 의료 역량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재평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객칭찬·협업 우수상



1분기 고객칭찬 최우수상을 받은 외과간호2팀 유재순 차장(오른쪽)이 박승일 병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분기 고객칭찬·협업 우수직원 시상식이 최근 진행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은 외과간호2팀 유재순 차장이, 고객칭찬 우수상은 암병원간호2팀 고유현 주임 등 16명이 받았으며, 협업 우수상

은 내과 문태진 레지던트 등 4명이 수상했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 고객칭찬 우수상과 협업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 꽃다발, 기념품이 전달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외과간호2팀 유재순

고객칭찬 우수상 암병원간호2팀 고유현, 외과간호2팀 고준석, 암병원간호1팀 김미선, 외과간호2팀 김지연, 외과간호팀 박경민, 외과간호2팀 손채원, 암병원간호1팀 신효진, 종양내과 유창훈, 암병원간호2팀 이경민, 간진운영팀 정미연, 내과 정지수, 특수검사팀 조아라, 내과간호2팀 천현주, 재활의학팀 최경용, 정형외과 최영락, 외과간호1팀 황희지

협업 우수상 내과 문태진, 어린이병원간호팀 임정훈, 원무팀 정준리, 영상의학팀 홍정진 (이름 가나다순)

어린이병원 세미나



어린이병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세미나가 5월 21일 융합연구관 아산홀에서 열렸다. 이제환 진료부원장, 임호준 어린이병원장 등 보직자를 비롯해 소아외과, 소아청소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소아청소년전문과, 소아청소년중앙혈액과, 신생아과, 소아응급실 등 어린이병원 의료진 1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어린이병원 신임 의료진 및 운영 현황 ▲소아 신속대응 프로세스 활성화 방안 ▲소아 기도관리 개선 활동 ▲5주기 의료기관인증 관련 준비 활동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나노공학 기반 다기능성 스텐트 개발

융합의학과 박정훈 부교수팀이 금속 스텐트의 합병증과 혈관 재협착 등을 줄이고 내피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스텐트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카프로락톤(PCL)에 실리카 나노입자를 도입한 복합 소재를 제작했다. 표면에 면역억제제인 시롤리무스를 코팅하고 혈전 형성과 혈소판 부착의 억제를 위해 탄탈륨 플라즈마 기반 이온 주입 기술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평활근세포 증식이 억제됐고 내피세포 재생, 혈관 개통성 향상, 재협착 억제 등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최근 게재됐다.

세계청각학회

제37회 세계청각학회가 5월 24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비인후과 정중우 교수가 회장, 안중호 교수가 부사무총장을 맡은 이번 학회에는 세계 82개국 청각 분야 전문가 1,540여 명이 참석했다. ‘기술 융합과 청각 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회에서는 난청 예방부터 진단, 치료, 일상 관리까지 통합적 청각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전환을 심도 있게 다루는 세션들이 진행됐다. 특히 독일의 안드레이 크랄, 캐나다의 캐런 고든 등 청각 분야 해외 석학들이 연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동 정

이부규 교수 대한치의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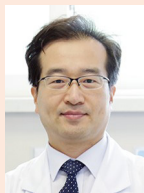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가 최근 제9대 대한치의학회장에 취임했다. 대한치의학회는 구강악안면외과학, 보철학, 교정학 등 40개 분과학회가 참여하는 치의학계 대표 학술단체다. 이 교수는 “회원 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치의학 학문의 발전과 변화를 앞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임기는 2026년 5월부터 3년이다.

이우제 교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차기 이사장



내분비내과 이우제 교수가 최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지질, 심혈관, 동맥경화 질환의 연구와 학술 교류를 위해 기초의학, 임상의학, 식품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 학회다. 이 교수의 임기는 2027년 1월부터 2년이다.

치과·재활의학과 연구팀 국책사업 선정



치과 안강민 교수,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 천화영 박사 연구팀이 최근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연구팀은 ‘다중 영상 시 융합을 통한 치주질환 및 전암 병소의 차세대 맞춤형 진단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2030년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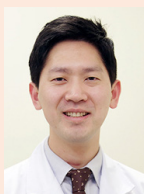
정형외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정형외과 이동호 교수와 조성탄 임상전임강사가 5월 20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서 인공기능 기반 멀티모달 모델을 이용한 척수증 진행 예측’을 주제로 동아학술상을 받았다. 동아학술상은 척추외과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조 임상전임강사는 조재환 교수와 함께 5월 27일부터 4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척추학술대회에서 ‘근위 인접 분절 실패의 예방을 위한 후 고정술과 척추체성형술의 비교: 후고정술의 선호 가능성’ 연구의 학술적 우수성과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우수e-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간센터 의료진 유럽간학회 ‘올해 가장 주목할 연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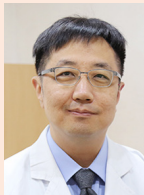
방사선종양학과 정진홍 교수, 영상의학과 박효정 조교수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올해 가장 주목할 연구’로 선정됐다. 정진홍 교수는 작은 간암 환자에서 체부정위방사선치료가 고주파열치료와 동등한 치료 성적을 보인다는 무작위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박효정 조교수는 고위험군 간경변 환자의 조기 간암 발견에 있어 단축형 MRI 기반의 간암 감시 검사가 현재 표준 검사인 초음파보다 우수하다는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를 각각 발표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안수민 부교수, 이여진 건진교수 학회서 수상



류마티스내과 안수민 부교수, 건강의학과 이여진 건진교수가 5월 16일 열린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안수민 부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항류마티스 약제와 관련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주제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여진 건진교수는 우수한 연구 활동으로 류마티스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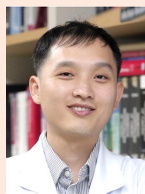
소화기내과·의공학연구소 의료진 우수포스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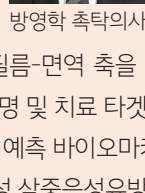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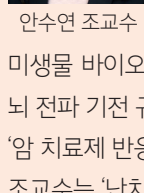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기욱 교수, 최경민 연구원, 주세경 교수 소화기내과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기욱 교수, 의공학연구소 최경민 연구원, 주세경 교수팀이 최근 열린 미국소화기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기능성 내장 영상 탐침(FIIP)’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역임피던스 기반 4차원 식도내압검사를 이용한 팽창 매개 폐쇄의 진단’을 주제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우리 병원 의과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임상 지식을 토대로 신기술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과 조성양 조교수는 ‘장내 미생물 바이오필름-면역 축을 통한 알파 시누클레인병증의 장-뇌 전파 기전 규명 및 치료 타겟 발굴’, 핵의학과 성창환 조교수는 ‘암 치료제 반응 예측 바이오마커 및 플랫폼 개발’, 병리과 정병관 조교수는 ‘난치성 삼중음성유방암의 기질 장벽 극복을 위한 공간 전사체 기반 내성 기전 규명 및 LIRC15-ADC 동반진단 시 솔루션 개발’, 심장내과 안수연 조교수는 ‘면역성 혈관 석회화 제어를 위한 rhAPE1의 산화 스트레스 저항성 강화 기술 개발’, 중앙내과 방영학 촉탁의사는 ‘고형암 종단 공간 다중오믹스 기반 중앙미세 환경 동적 변화 규명 및 정밀의료 바이오마커·신규치료표적 발

굴’을 주제로 각각 연구를 진행한다.

김현진 조교수 우수연구발표상



신경과 김현진 조교수가 5월 22일 열린 한국루게릭병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발표상을 받았다. 김 조교수는 ‘후기 근위축측삭경화증에서 혈청 GFAP의 생존 예측: 전향적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대한환자안전학회서 수상



우리 병원 의료진이 최근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제22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중환자간호팀 김경민 과장, 김명용·이현민 대리팀은 ‘중증환자 모니터링 이송팀 구축 및 운영’을 주제로 구연발표 최우수상을 받았다. 내과간호1팀 구자영 과장, 내과간호2팀 이은옥 대리, 민소윤 주임, 심장병원간호팀 조현경 대리, 외과간호1팀 박미선·박현정·한선미 과장, 외과간호2팀 김도영 주임, 통합돌봄지원팀 백미경 과장으로 구성된 연합팀은 ‘지참약 투약 오류의 근본원인분석과 개선전략 도출’을 주제로 포스터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달의 후원자

		(단위: 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정하연	5,000,000	신종석	1,000,000	
		주식회사 와이에이치	100,000,000	이지은(아이유)	100,000,000	
	강교은	3,000,000	(주)현대이지웰	100,000,000	(주)논픽션	100,000,000
	김국향	30,000,000	프라타마부산사무소	200,000,000	태요미네	10,000,000
	김순자	100,000,000	하이트진로(주)	100,000,000	황수진	5,000,000
	박성수	1,000,000	한홍진	100,000,000		
	스탠다드인타내셔널(주)	500,0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유한책임회사 브이시파트너스	100,000,000	불우환자 지원		불우환자 지원	
	이대성	10,000,000	Kang so keun	1,000,000	전제현	260,506
	이윤상	100,000	강근숙	1,000,000		
이정실	5,000,000	김국향	70,000,000			
이진규	10,000,000	김근석	1,000,000			
故 이흥구 前 아산재단 이사	100,000,000	김재나	1,000,000			
임채민	1,000,000	서병삼	100,000,000			

- 2026년 5월 31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 2026년 5월 31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환자가 느끼는 치료 결과까지 바라보다



송시열
암병원장

어느 폐암 환자의 CT 검사에서 치료 후 종양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첫 진단 때 힘들어하던 호흡곤란 증상도 호전돼 의학적인 경과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 다만 새벽에 기침 때문에 자주 깬다는 불편을 호소한다. 이 환자의 외래 진료 때는 항상 비슷한 대화가 오간다. “암세포는 다 줄어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기침은 왜 계속 날까요?” “검사에 이상은 없으니 약을 쓰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환자는 검사에 이상 없다는 말에 안심하면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표정이다.

이 상황을 해석해 보면, 종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재발이 없으니 의료진은 만족스러운 임상적 결과(clinical outcome)로 평가한다. 반면 환자는 치료가 잘 됐다고 들긴 했지만 계속되는 기침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만약 이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환자보고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치료 결과 평가는 검사에 기반한 재발률이나 생존율 등 객관적 지표로 이뤄진다. 하지만 치료 후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나 감정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료 결과를 판단할 때 ‘환자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환자중심의료(Patient-Centered Care, PCC)가 부각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 환자보고결과(PRO)다.

환자가 중심이 된 치료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 치료를 받은 환

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환자보고측정 또는 환자보고평가(Patient-Reported Measure, PRM)가 개발됐다. 그중 하나가 환자보고경험측정(Patient-Reported Experience Measure, PREM)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환자경험평가’라는 이름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PREM은 주로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의료진과의 관계, 병원 환경, 치료 과정의 수월성 등에 대한 경험을 평가하는 분야다.

이에 비해 환자보고결과측정(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은 병원이 그동안 꾸준히 향상시켜 온 객관적인 임상 결과에 치료 후 상태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병원은 그동안 일부 분야에서 질병 중심으로 모바일 설문과 e-PROM 시스템을 통해 PROMs를 시행해 왔다. 치료 과정보다는 치료의 질적 결과에 집중하는 가치 기반의료(Value-Based Healthcare, VBH)의 측면에서 PROMs는 환자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미충족 수요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PROMs의 전사적 도입을 위한 PROM팀과 PROM운영위원회가 올해 초 신설됐다. 원내 PROMs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맡고 있으며, PROMs를 진료 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담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담당교수를 중심으로 세심한 준비와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뜬금없지만 ‘prom’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보던 고등학교의 무도회를 뜻한다. 해외 학회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만난 prom 덕분에 여정이 즐거웠다. “Will you go to prom with me?”라는 설레는 초대처럼, 우리도 PROMs와 함께 즐거운 여정을 시작해 보자.

글로벌 병원의 AI 사용법 ②

환자 중심 스마트 병원을 향한 공간과 조직의 혁신



양동현 AI혁신지원실장

지난 글에서는 데이터와 시스템 혁신을 통해 의료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AI가 병원의 물리적 공간과 조직문화에 스며들어 어떻게 환자 경험을 혁신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자경험의 혁신: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구현

존스홉킨스병원은 병원 내 의료 자원 현황과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진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커맨드 센터’를 2016년 세계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24개 수련병원으로 확대 적용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심박수, 체온, 호흡 패턴 등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기반 패혈증 조기경보 시스템 ‘트루스(TREWS)’를 개발해 사망률을 18%나 낮추며 AI의 임상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 세바메디컬센터는 세계 최초 AI 기반 응급실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아바타가 응급실 환자를 먼저 문진한 뒤 요약 정보와 영상 분석 결과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뇌출혈을 진단하는 AI를 도입한 뒤 120일 기준 사망률이 도입 전보다 최대 30% 감소했다는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휴스턴 메소디스트병원은 ‘스마트 룸’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음성 기술을 활용해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를 AI가 분석하고, 침상 주변 카메라와 센서가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낙상을 예방합니다. 가상 간호사가 환자 교육을 보조하는 등 공간 전체가 환자 중심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뒷받침하는 조직의 변화

마운트시나이병원은 2024년 맨해튼에 AI 개발 연구소를 설립하고 디지털헬스, 게놈, 생체의공학, 개인맞춤 의학 분야 등을 접목하는 ‘AI 및 인간 건강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AI 부서를 임상 진료과와 대등한 지위로 격상시킨 것으로, AI를 미래 의료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한다는 전략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과제와 미래

우리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마트 의료 생태계 측면에서는 아직 도전해야 할 영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자체 의료 AI 개발과 수많은 기술 이전, 창업을 통해 검증된 독보적인 융합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의료 AI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 중재시술 로봇 개발 등 그간의 성과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병리 시스템과 30여 년 이상의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EHR, PACS 시스템도 우리 병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리 병원 구성원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량을 환자와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으로 구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병원은 AI혁신지원실을 확대 개편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과 구성원의 합심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병원이 글로벌 스마트 의료를 선도할 날도 머지않을 것입니다.

※ ‘AI 현장 리포트’ 코너에서는 의료 AI의 발전 흐름과 트렌드, 우리 병원만의 의료 AI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장 작고 위대한 우주를 지키는 첫 페이지

신생아과 김수현 조교수

스스로 숨을 쉬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일조차 힘든 아기들로 신생아중환자실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부담이 큰 만큼 사명감도 커져간다는 김수현 조교수는 “그럼에도 신생아과 의사의 특권이라면 기다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스스로 성장하며 장기가 성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니깐요”라며 꼼꼼한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에 힘쓰고 있다.



회색 지대의 아기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펠로우 시절에 당직 의사가 단 둘뿐이던 새벽이었어요. 24주 세쌍둥이가 한꺼번에 태어난다는 응급 분만 콜을 받았습시다. 24주 아기는 한 명당 최소 두 명 이상의 의료진이 필요한 터라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병동과 집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준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경험이 쌓이면서 그때보다는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생명을 마주하는 설렘과 중환자라는 긴장감이 늘 교차합니다. 기대 여명이 얼마 안 되거나 난치성 복합 기형 등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도 열심히 살피고 잘 살려보겠다는 사명감이 필요하죠.”

김수현 조교수는 주수나 체중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거나, 산전에 기형을 진단받아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아들의 치료를 맡고 있다. 보통 35주, 2kg 이상을 채우고 활력 징후가 안정되며 수유가 잘 돼야 치료 목표인 퇴원이 가능하다. “전공의 시절에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신생아중환자실 중증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 산부인과에서 산전에 태아 진단을 내리고 고도의 치료로 임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어지는 신생아과의 치료 난이도 역시 높아졌다. 신생아과 의료진은 24시간 양질의 진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의료진이 모여 전 환자를 함께 회진하며 의견을 나눈다. 그렇게 쌍

인 경험과 노력으로 500g 미만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국내 생존율이 20%대에 머무는 데 반해, 우리 병원은 70% 가까이 끌어올렸다. 나이가 적극적 소생 주수 기준을 23주에서 22주까지 낮추며 회색 지대에 놓인 아기들을 살리는 테두리를 넓혀가는 중이다.

생존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며

“단순히 아기를 살려내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장기가 미숙한 환아들은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다. 생존하더라도 건강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반쪽 치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조교수의 설명이다. 그렇기에 초기 소생과 인공호흡기 치료 단계부터 혈액학(심장 기능 및 혈압 등)을 최적으로 조절해 중증 뇌출혈을 차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관 삽관 시 적절한 깊이를 예측하는 공식을 밝힌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카이스트에서 전문연구원으로 복무하며 기초 중개 의학을 접한 경험은 진료의 질을 높이는 임상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신생아 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라만 분광’을 도입한 협업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병섭 교수와 함께 아기 상태에 맞춰 수기로 처방하던 ‘정맥 영양’ 시스템에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부모의 마음까지 보듬는 치료

“글을 쓰거나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이과를 선택했는데 신생아과 의사가 되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보호자와의 대화더라고요(웃음).”

펠로우를 시작할 무렵, 첫 아이를 얻은 경험은 환아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도 신생아과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 여긴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이만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감정 동요가 적은 제 성격이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어려운 순간을 함께 보낸 아기들이 그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한다. 퇴원 후 외래에 왔다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엄마와 들를 때다. 생후 첫날부터 중증 횡격막 탈장으로 에크모 치료와 여덟 차례 큰 수술을 이어간 윤성기도 무사히 돌을 지나 인공호흡기와 기관 절개관을 빼고 방긋 웃으며 나타났다. 오랜 시간에 걸친 어머니의 눈물겨운 돌봄과 의료진의 성실한 치료, 무엇보다 윤성이가 모든 치료를 잘 버텨준 덕분에 김 조교수는 더 큰 보람과 존재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논문 성적이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거대한 꿈보단 제가 치료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여도 자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로 남고 싶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혈당,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흐름을 읽는다



내분비내과 조윤경 조교수



연속혈당측정기가 뉴스나 유튜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과연 연속혈당측정기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연속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을 정리했다.

연속혈당측정기란 무엇인가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는 팔 등 신체부위에 동전 크기의 작은 센서를 붙여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기다. 손끝을 찔러 피를 내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이나 전용 리더기를 통해 혈당을 확인할 수 있고,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알람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CGM은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조직액, 즉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약 5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한 번 센서를 붙이면 제품에 따라 최대 14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중 혈당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 혈당측정기와 무엇이 다를까

기존 자가혈당측정기가 특정 순간의 혈당 수치를 알려준다면, CGM은 혈당의 흐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화살표가 위를 향하면 혈당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고 아래를 향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운동 후 혈당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잠자는 동안 저혈당이 생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최신 CGM 기기는 정확도가 많이 향상돼 임상 진료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혈액이 아닌 간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혈당보다 5~15분 정도 늦게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저혈당 증상이 있거나 혈당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손끝 채혈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CGM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목표범위 내 시간', 즉 TIR(Time in Range)이다. 이는 혈당이 70~180 mg/dL 사이에 머문 시간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TIR이 90%라면 하루 중 90%의 시간 동안 혈당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었다는 의미다. 환자들에게는 “혈당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는 TIR 70% 이상을 주요 혈당 조절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경우 사용하면 도움이 될까

당뇨병 환자에게 CGM은 일상 속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과일을 자주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것을 보고 식습관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운동 후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운동을 지속할 동기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 혈당 변동이 큰 환자, 저혈당이 반복되거나 저혈당 증상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수면 중 저혈당을 발견해 약물을 조정하거나 다회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인슐린 용량을 보다 안전하게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임신 중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게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임상연구에서도 CGM 사용은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저혈당을 줄이며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인슐린 투약이 꼭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최근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CGM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피하면 살이 덜 쪼든다는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CGM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등 여러 유관 학회도 2024년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CGM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CGM 센서 비용은 한 달에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체중 관리가 목적이라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CGM은 단순히 혈당 숫자를 보여주는 기기가 아니다. 일상 속에서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분명 혁신적인 기기이지만 올바른 대상에서 의료진의 지도 아래 사용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면 CGM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AMC의 유방암 치료 노하우 이스라엘에 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로넨 베르코비츠 교수



저는 이스라엘의 국립보건기구인 클라리(Clalit Health Services)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젊은 유방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에서 로봇과 복강경을
활용한 유방암 수술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 영상과 병리 결과를
검토하고 콘퍼런스에도 참여하며 임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뛰어난 의술을
자랑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수술을 마치고 손병호 교수님(왼쪽)과 한 컷

서울아산병원의 수술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 유방암 수술을 잘하는 병원은 참 많습니다. 여러
의료 선진국 중에서 한국, 그중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을 선택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술 노하우와 압
도적인 수술 건수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수술로봇이
전 세계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죠. 로봇이나 복강경
을 활용한 유방암 수술 실력은 서울아산병원이 미국이나 다
른 의료 선진국의 병원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매일 10
건 이상 진행되는 유방암 수술을 모두 참관하고 있는데, 짧
은 기간에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접하며 외과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 하루는 수술실에서 시작해 수술실에서 끝납니다. 하
나의 수술도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인 김희정 교수님뿐 아니라 재발성 유방암 등 까
다로운 수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손병호 교수님, 로봇
및 복강경 수술에서 정교한 술기를 보여주시는 이새별
교수님과 유태정 교수님, 와이어 마킹 없이 초음파 유도
하 절제술로 환자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
하는 정일용 교수님까지! 모든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놓
치지 않고 배우기 위해 매일 수술실 이곳저곳을 뛰어다
니고 있습니다(웃음).



유방외과 동료들과 '소문의 낙원' 챌린지도 찍었어요!
(뒷줄 가운데가 로넨 베르코비츠 교수)



지도교수인 김희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AMC의 뛰어난 수술 성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시간도 참 소중한답니다.

바쁘더라도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해요.
수술실 동료들과 샌드위치로 점심을 함께하기도 하고, 퇴
근 후에는 유방외과 의료진과 콘서트를 보러 다녀오기도 했
습니다. 특히 4월엔 보다 특별한 추억을 쌓았어요. 비타민 D
데이 행사에서 난생처음 솜사탕도 먹어보고 따뜻한 햇살 아
래서 동료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최
대 명절인 페사흐(Pesach, 유월절) 기간도 그때였거든요. 전
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무교병(효모가 없는 빵)을 동료들과
나누며 이스라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의료 외 분야에서도
동료들과 접점을 넓혀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뛰어난 의술, 이스라엘에 전하겠습니다.

기숙사, 수술실, 외래 등을 오가다 보면 저와 같은 해외의학
자를 많이 만납니다. 모두 서울아산병원의 뛰어난 고난도 치
료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은 분들이죠.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넘어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주는 서울아산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까지 연수를 마무리한 뒤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계획
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배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수술 기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유방암 환자들에게 치료
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제팀 이연경 사원입니다

맡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외래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설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외래 처방이 환자 상태에 맞게 잘 나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진료과와 소통해 중재하기도 하고요.

매주 포지션이 달라지다 보니 투약구에서는 환자분들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묻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약국 내에서는 “약 재고 좀 봐주세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조금 지친 날에는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투약구 업무가 좋지만, 몸이 가벼운 날에는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는 조제 업무도 좋습니다.

업무에 적응했구나 싶을 때가 있나요? 업무 특성상 꼼꼼함이 필요한데 초반에는 실수가 잦아 선배님들이 많이 고쳐주고 조언해 주셨어요. 덜렁대는 성격을 인지하고는 항상 이중 체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실수가 거의 없어졌어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넘기며 추억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돼요. 회복탄력성이 높아서인지 깊게 고민하기보단 하루하루 재미있고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병원 안에서 길을 헤맸지만 지금은 저만의 지름길을 만들어 다니는 것처럼요.

병원 생활의 활력소를 꼽는다면요? 환자분들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호소하거나 특정 사항을 물어볼 때 제가 가진 지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면 참 뿌듯해요. 환자분들이 제 노력을 알아보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더하면 하루가 행복한 기분입니다.



“어디나,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성격으로 다양한 환자분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하루가 있나요? 한 환자분께서 20가지가 넘는 약을 처방 받은 이렇게 많이 챙겨 먹느니 차라리 안 먹고 빨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잘 챙겨 드신 덕분에 건강하게 병원에 오고 가족과 시간도 보낼 수 있지 않냐고 되물었죠. 환자분의 이런 마음을 알면 가족분들이 속상해할 거라면서 앞으로 서서히 약을 줄여가면 좋겠다고 위로해드렸고요. 환자분이 제 말이 맞다면서 고마워하셨던 기억이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어쩔 줄 몰라서 정적이 흐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해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약제팀의 모든 유닛을 돌아보고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 병원에 잘 다니고 싶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에서



진단검사의학팀 이민주 사원

진단검사의학팀 채혈 유닛에 근무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만난다. 채혈실은 병원에 들어선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공간, 즉 치료의 출발선이다. 채혈 의자에 앉은 순간 환자는 이미 결심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다. 그 짧은 순간에 긴장과 불안, 그리고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다. 책 『의사의 속마음』은 그런 순간들을 비추는 조용한 거울과도 같다. 환자 앞에 서는 의료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의 일을 시작하고, 어떤 기준으로 말을 고르고, 또 어떤 책임을 건디는지 차분히 들려준다. 책은 진료실과 검사실, 병동 등 각기 다른 공간을 오가며 의료진의 내면을 세밀하게 담아낸다. 의료를 단순히 기술과 결과만으로 환원하지 않고 환자 앞에 선 한 사람의 태도와 선택으로 재정의한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속도보다 정확성과 배려가 먼저인 순간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이란 말이 결국 현장의 언어와 자세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환자의 질문이 길어지고 설명이 반복될 때 마음속에 조급함이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일, 그 작은 훈련이 의료의 품격을 만든다는 메시지가 이어진다.

읽는 내내 마음속에 남은 질문은 ‘의료인은 환자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였다. 효율이 미덕인 환경에서 환자의 숨결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게 된다. 채혈대 앞에 앉은 환자의 떨리는 손, 짧아진 호흡, 말없이 건네는 시선은 의료진의 한 마디와 한 동작에 따라 전혀 다르게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바코드 하나, 튜브 라벨 하나가 다음 과정을 여는 표식이지만 환자에게는 오늘의 진료가 안전하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채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만 생각했다. 지금도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책을 읽은 뒤에는 같은 채혈이라도 환자가 느끼는 경험의 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게 됐다. 눈을 맞추고, 이유를 설명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끝난 뒤에는 지혈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태도가 작은 친절을 넘어 병원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번의 채혈은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정확한 검사와 진단으로 이어지는 팀의료의 첫 단추라는 것도 새삼 선명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를 내기 전에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리듬을 먼저 만들기로 했다.

이 책을 의사뿐 아니라 환자를 만나는 우리 병원 모든 구성원에게 권하고 싶다. 의료는 특정 직군의 업무가 아니라 환자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쌓여 완성되는 공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환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오늘의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그 가르침은 결국 환자에게 남는 경험을 바꾼다.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에서 나 역시 그 질문을 잊지 않고 싶다.



의사의 속마음
(의사는 환자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자: 나카야마 유지로
옮긴이: 변은숙
출판사: 반니라이프
페이지: 256쪽
발행일: 2019. 07. 25

※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잘 먹는 힘을 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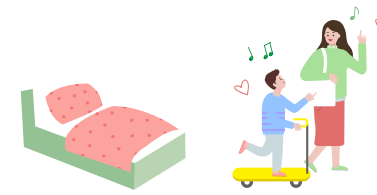
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참고해 식단을 관리해왔지만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까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2회차에 이연미 선생님께 영양 상담을 받게 됐고 그 상담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식사 원칙과 식단 관리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막연했던 식단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올바른 식단이 치료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며 따뜻한 조언으로 치료 과정의 베틀목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상담을 이어가며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환을 마주했을 때 누구나 두려움에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더 큰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식습관을 먼저 파악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면서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식단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임상영양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단을 통해 치유가 되고 있다’는 환자분의 말씀에서 치료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분 스스로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영양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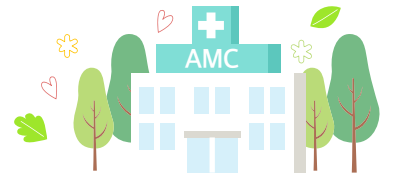
- 영양팀 이연미 차장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출근 기행

영상의학팀 박선아 주임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나는 아이의 가방끈을 고쳐 메주는 마음으로 휴직을 선택했다. 어느덧 아이는 2학년이 되었고 ‘엄마’라는 시간 속에 머물던 나는 내 이름이 적힌 사원증을 메고 초음파실로 돌아왔다. 복직 전 들려오던 동료들의 고단한 목소리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지만 막상 출근 당일 이 되니 기분 좋은 설렘이 차올랐다.



하지만 설렘이 무색하게도 복귀 첫날 기본적인 관문에서 똥땡거리며 당황하고 말았다. 아미스 로그인 창 앞에서 손가락이 멈춰 선 것이다. 내 집 주소만큼 익숙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머릿속에서 하얏게 지워져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한 사무실에서 로그인 오류 메시지와 사투를 벌였다. 몇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식은땀이 났다. “선생님, 제가 아미스 비번을 까먹었나 봐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건넌 말에 동료들은 박장대소했다.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처음 입사

한 신입사원처럼 서툴렀던 아침, 나는 동료들의 배려로 일터 리듬 속에 들어설 수 있었다. 로그인에 성공하고 나서야 주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검사실의 ‘땡땡’ 알람 소리, 동료들의 경쾌한 키보드 음, 업무 사이사이에 실없는 농담과 웃음들... 휴직 기간에 그토록 그리웠던 건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바로 이 소란스럽고 다정한 일

상이었다. 화룡점정은 역시 아침에 마시는 직원 카페의 아이스 라떼였다. 집에서 마시던 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일터의 생동감이 섞인 고소한 라떼 한 모금에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로그인 오류를 해결했던 것처럼 앞으로 마주할 크고 작은 문제들도 동료들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학교라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을 아들도 분명 잘해 내리라 믿는다. “다녀왔습니다!”라는 혼잣말과 함께 나의 두 번째 일상이 시작되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래간호팀 외래8유닛 김민지 대리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의료진과 함께 울산 여행을 다녀왔다는 기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모든 환아들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내과간호팀 장미나 주임

‘헬스에디터 - 자궁경부암 백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에 주변에서 자주 묻는 내용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 유용했습니다. 한층 똑똑해진 기본입니다.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강신아 대리

‘시 현장 리포트 - 데이터와 시스템이 만드는 의료 혁신’을 읽으며 시가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가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역동적인 시대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간호팀 김영진 선임기능

‘감사우체통 - 응급실에서 피어난 온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두렵고 낯선 응급실을 온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암병원간호2팀 김자연 과장

‘AMC루키’ 코너의 중환자간호팀 선생님 인터뷰가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께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몰입해 읽었습니다.